

## 한국어판 저자 서문



**면** 저 줄저의 집필 동기부터 출판 후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 되게 된 경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가을,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대만사연구소주비처(臺灣史研究所籌備處)는 대만의 임영문화교육기금회(霖英文化教育基金會)로부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글과 함께 그림이 많이 들어간” 대만 역사책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주임이었던 황부삼(黃富三) 교수가 저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기금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목표로 빠듯한 업무 외 시간을 쪼개어 작업을 진행한지 3년 만인 1997년 10월 마침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드디어 임무를 완성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책이 나오자마자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몇 달 만에 초판이 거의 매진되었습니다(들리는 바에 의하면 많은 학교에서 대만사 보충 교재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수요에 응하고자, 오랫동안 학술서적 발행으로 명성이 높은 연경출판공사(聯經出版公司)에 이 책의 출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연경에서는 현재까지 12쇄를 발행했는데, 역사 서적이 이처럼 널리 환영받는 경우는 대만에서 매우 드문 편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 중에 대만 유학 중인 신미정 님이 이 책을 읽고 매우 마음에 들어 한국 독자에게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출판과정을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이 대만사 연구에서 갖는 의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만에서 대만사 연구가 학술계의 한 영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은 기껏해야 15년 정도로,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중시되지 못했고 심지어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대만사가 1987년 '계엄해제' 이후 마침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학문적 연구축적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대만 사회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일반대중이 읽을 수 있는 개설서를 줄곧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뛰어난 논문들이 있지만 일반 독자들이 쉽게 구하여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때에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정도가 저자인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분한 것이었지만,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만사 연구에 있어 최소한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만 역사상의 복잡한 족군(族群: Ethnicity)과 문화 및 언어를 함께 묶어서 서술하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최신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만사는 대부분 한인(漢人) 위주로 서술되어, 원주민 및 역사시기의 원주민과 한인간의 관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선사시대와 남도어족(南島語族: Austronesian)부터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이 중심이 된 역사시기에도 원주민에 대한 서술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서술의 틀이 이미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한편 최근 10년 이래 대만사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주목받는 논저가 적지 않게 나왔고, 인류학계의 대만 원주민에 관한 연구도 이전부터 훌륭한 성과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대만사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시키고자 했고, 비록 제 스스로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책이 적어

도 대만사 연구의 조그마한 결정(結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설서의 저자로서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들은 당연히 저로 하여금 “근거 있는 서술”을 하게 해주신 이들 학자입니다.

저는 대만인들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인식하고”자 하는 바로 이 시기에, 대만사의 연구 성과를 한국 독자에게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 기쁨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이 장차 한국과 대만의 직접적인 접촉과 이해를 촉진하는데 혹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매우 가까워서 비행기로 대북(台北)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접촉과 이해는 매우 적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대만이 과거 오랫동안 미주 신대륙에만 관심을 쏟고 이웃 나라를 너무나 소홀히 대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흥미가 적었으니, 동남아 여러 나라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러한 사정은 90년대에 들면서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민족 또는 국가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사실 20세기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 이전 동아시아 제민족은 하나의 광역 문화권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 서로 긴밀하게 교류·전파·무역하였고 때론 전쟁도 하면서, 항상 평화롭게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21세기는 동아시아 각국이 다시금 서로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가 충만한 시점에 제가 한국 독자에게 대만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교류란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최근 1~2년 사이 한국에 대한 대만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관심이 단순한 대중문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올 6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중국사학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뒤, 서울로 가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이전에 제가 책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행한 대만학자들은 어려운 연구 환경 하에서 학문적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한국 학계의 분발(奮發) 정신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마침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광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비긴 후, 포르투갈을 이기는 순간, 우리도 한국인들의 거국적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한국이 다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누르고 당당히 세계 4강의 대열에 들어서는 중계방송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비록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한국팀의 탁월한 실력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고, 특히 저는 한국 선수들의 인내력에 감탄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러한 강인한 정신은 실로 우리 대만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가장 먼저 신미정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처음 나를 찾아와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는 의향을 말했을 때는 대만국립정치대학(台灣國立政治大學)에서 석사학위를 막 취득한 후였지만, 지금은 대만국립청화대학(台灣國立清華大學) 박사과정 3학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끈기와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어 번역본

이 이처럼 빨리 출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윤하 교수님과 손준식 교수님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 교수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경국국제학술교류기금회(蔣經國國際學術交流基金會: Chiang Ching-kuo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cholarly Exchange)의 한국어 번역 지원 프로젝트의 수주와 집행을 책임지셨고, 손 교수님께서 제2차 번역 교정과 윤문 그리고 출판에 관련된 사항 등을 맡으셔서 각별하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이 세 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 책의 한국어판이 비로소 순조롭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판에 앞서 신미정 님·박윤하 교수님·손준식 교수님, 그리고 출판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친구문화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장경국국제학술교류기금회의 출판보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경국기금회의 출판보조는 대만과 한국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진지한 배려 하에 이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이 그러한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대만인과 한국인 사이의 하나의 다리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대만에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항(南港) 연화실(蓮花室)에서 주완요(周婉瑤)

2002년 6월 30일